

'땅 밑'의 책과 '땅 위'의 책

흔히들 하는 우스갯소리로, '특별시민'이 아니라 아직 '직할시민'인 탓에 출퇴근길 교통수단으로 경인전철을 이용하는 처지이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두번씩은 꼭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들고나게 되는데, 이 종각역 구내에 최근 몇달동안 재고 도서 할인매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두어번 들러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는데, 옷가지들과 함께 전시판매되고 있는 이 '땅 밑' 할인매장의 책들 가운데 바로 그 '땅 위'의 종로서적에서 현재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그것. 「소설 동의보감」 「화염경」 「최후의 계엄령」 「소설 토정비결」 등이 (개중엔

저자 인지까지 첨부된채) 버젓한 '정품'의 모습을 하고 정가의 20%가 할인판매되고 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라 여기저기 알만한 대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만 적어도 출판사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대답들이다. 현재도 여전히 잘 나가는 책을 의도적으로 덤핑시장에 내놓을 까닭이 없고, 그렇다고 의도하지 않은 관리소홀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도매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지는데,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할인매장을 개설한 측에서 현금을 들고 가 자신들이 할인해서 판매하더라도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의 가격으로

책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가 고작일 뿐이다.

경위야 어떻든 독자들 입장에서 사실 같은 책을 싼값으로 살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래선지 이 할인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언제나 적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싼값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옳은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나 합리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는, 평지돌출식의 싼값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현재의 우리 도서유통체계가 빈터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의 한 함정일 수도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으로 곧 메꾸지 않을 경우, 그나마의 유통체계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함정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출판시장 블랙마켓의 한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105호 / 1992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濤 崔允源 鄭惠玉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愼鍾夏 | 安永水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瑞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煒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炳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震 | 韓勝惠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彦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호르헤 두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작품세계는 환상적인 이야기와 언어의 실험 등 풍요로운 놀이로서의 뛰어난 상상력을 주무기로 한다. 특히 그의 소설인지 연구는 문인지 모를 특색있는 작품들 속에 다양한 분야의 책이 무수히 등장해 흥미를 끈다. 1944년 출판돼 그를 세계적 작가로 부상시킨 「허구들」과 「보르헤스 강연집」을 모은 「허구들」(박병규 옮김, 녹진)에서 일부분을 발췌해 인용 소개한다.

인간이 상용하는 여러가지 도구들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책이다. 다른 것들은 신체의 확장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시각을 확장한 것이고, 전화는 목소리의 확장이고, 칼과 쟁기는 팔의 확장이다. 그러나 책은 다른 것이다. 즉, 책은 기억의 확장이며 상상력의 확장이다.

버나드 쇼우는 희곡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서량 70만권의 도서관으로 시저가 이 도시에 입성한 후, B.C.48년에 파괴되었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이라고 했다. 책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나아가서는 상상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란 일련의 꿈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꿈을 기억해내는 것과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책의 기능이다.

나는 언젠가 책에 관한 역사를 쓰려고 한 적이 있었다. 물리적인, 특히 방대한 규모의 장서가의 책과 같은, 책이 아니라 책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이다. 이점에서는 슈펜글러가 나보다 앞선다. 그는 「서구의 몰락」에서 책에 대해 귀중한 고찰을 하고 있다. 여기서 슈펜글러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 몇가지 나의 견해를 덧붙이기로 한다.

고대인들에게는 책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책을 말의 대용품으로 보았다. 흔히 인용되는 저 구절, 「글은 남고, 말은 흐른다」라고 하는 격언은 말이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에 비해 글이 항구적이며 죽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에 말은 빠르고 가벼운 것, 플라톤의 말처럼 「빠르고 신성한」 것이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말로 가르친 스승이었다. (중략)

책에 대해 수많은 작가들이 재기 넘치는 얘기를 했다. 나는 그중에서 몇가지를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로 언급할 사람은 몽테뉴이다. 그는 책에 관한 수필을 하나 썼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억할 만한 구절이 있다.

“나는 즐겁지 않는 일은 아무 것

도 하지 않는다.”

몽테뉴는 의무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어느 책에서 어려운 구절을 발견하면 손에서 책을 놓았다고 말한다. 독서란 일종의 행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가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작가는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조이스 같은 작가는 본질적으로 실패한 작가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읽기에 힘이 들기 때문이다. 책은 읽기에 힘이 들어서 안 되며, 행복도 노력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몽테뉴가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러 작가들을 열거한다. 그는 버질을 인용하면서 「에네이더」보다는 「고르기아스」를 더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에네이더」를 더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몽테뉴는 열정적으로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는 책이 행복의 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명나는 즐거움은 아니라고 말한다.

에머슨은 이에 반대한다—그가 쓴 글은 어느 사람의 글 못지 않게 훌륭하다. 에머슨은 책에 대한 논의에서 도서관은 일종의 미술상자라고 했다. 이 상자 속에는 인류의 가장 좋은 정신들이 미술에 걸려 있다. 우리들은 책장을 펼쳐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미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우리가 인류가 낭

은 훌륭한 사람들을 동반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지 않고 주석이나 비평을 읽으려 들면 그들이 말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

나는 장남이 아닌 적 계속 책을 사서 내 서재를 채우고 있다. 일전에 1966년판 「브룩하우스 백과사전」을 선물받았다. 나는 우리 집에 그 책이 있음을 느꼈는데, 그것은 일종의 행복감이었다. 저기에 20여권의 책이 있구나. 비록 고딕체글씨는 내가 읽을 수가 없고, 거기에 실린 삽화와 지도는 내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책이 있었다. 나는 그 책에서 다정스럽게 나를 잡아끄는 힘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책이란 우리 인간들이 맛볼 수 있는 행복들 가운데 하나이다.

책이 사라질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책과 신문이나 음반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고 할 것이다. 차이점은 있다. 신문이란 망각하려고 읽으며, 음반도 마찬가지로 망각하기 위해 듣는다. 그리고 음반은 기계적인 것이라 경박스럽다. 아무튼 책은 기억하려고 읽는다. (중략)